

속초 普光寺 〈목조지장보살좌상〉과 彫刻僧 草安

최선일*

- I. 머리말
- II. 속초 보광사 木造地藏菩薩坐像과 發願文 및 腹藏物
- III. 조각승 草安의 활동과 그 系譜 및 佛像 樣式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후기(1600-1910) 사찰 내에 봉안할 불상의 제작과 중수·개금에 참여한 僧侶匠人(이하 僧匠)은 천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불상 제작을 주도한 首畫僧은 100여명 정도로 밝혀졌다.¹ 특히,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절정기에 속하는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無染(-1633-1656-),² 雲惠(雲慧, 云惠: -1649-1680-),³ 勝一(勝日: -1622-1670-),⁴ 熙藏(-1639-1661-) 등은 불상 양식과 조각승 계보까지 연구되었다.⁵ 이 조각승들은 1630년대 名山大刹의 중창과 중건이 끝난 후, 1640년부터 1660년대까지 명산대찰의 부속 전각(羅漢殿, 冥府殿)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의 중심 전각(大雄殿)에 불상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1 崔宜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敎彫塑』(養士齋, 2007).

2 文明大, 「無染派 목불상의 제작과 설악산 新興寺 목아미타삼존불상」, 『고려·조선불교미술사 연구: 三昧와 平淡美』(예경, 2003), pp. 402-416.

3 崔宜一, 「全羅南道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雲惠」, 『불교미술사학』 2(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4), pp. 199-219.

4 李芬熙, 「조각승 勝一派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 美術史』 26-I(韓國佛敎美術史學會, 2006), pp. 83-112.

5 宋殷碩, 「朝鮮後期 17世紀 彫刻僧 熙藏과 熙藏派의 造像」, 『泰東古典研究』 22(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6), pp. 189-229.

과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조각사에서 조선후기 불교조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많은 조각승들이 제작한 紀年銘 佛像이 발견되지 않아 개별 작가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양식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조각승 草安(楚安)은 필자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應元和 印均을 연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⁷ 초안은 1659년에 수화승 三忍과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에 補助畫僧으로 참여한 승려이다. 필자는 2010년 9월에 강원도 속초시 보광사 대방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의 樹種과 年輪年代 등을 조사하면서 초안이 만든 기년명 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⁸

따라서 필자가 조사한 조각승 초안이 제작한 불상은 1654년에 강원 금강산 안양암에 제작한 <木造地藏菩薩坐像>(속초 보광사 봉안), 1659년에 수화승 삼인과 함께 전남 고흥 금탑사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十王像>이다.

본고에서는 조각승 초안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인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양식적 특징과 복장물(造成發願文과 佛教經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화승 초안의 활동과 조각승 계보를 알아보고, 초안과 같이 활동한 조각승들이 만든 불상과 상호 비교하여 보겠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개별 조각승의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비교하여 양식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속초 보광사 木造地藏菩薩坐像과 發願文 및 腹藏物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79-2번지에 위치한 보광사는 1938년 1월 19일에 鄭華潭 스님이 乾鳳寺 東草布教堂으로 창건하였다.⁹ 이 사찰의 대방에는 <阿彌陀三尊佛坐像>이 봉안되어 있다. 삼존불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과 지장보살이 협시로 구성되었는데,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은 시멘트로, 지장보살은 나무로 제작되었다(도 1). 필자는 2010년 9월에 사찰의 의뢰를 받아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은행 연구팀과 목조불상의 수종과 연륜연대 등을

6 崔宣一, 「朝鮮 後期 彫刻僧과 佛像樣式의 변천」, 『美術史學研究』 261(韓國美術史學會, 2009.3), pp. 45-49.

7 崔宣一,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6).

8 조각승 초안의 기년명 불상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신 모악산 대원사 석문 주지스님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9 조선총독부 관보 3680호(1939년 5월 1일).



도 1 아미타삼존불좌상, 속초 보광사 대방

조사하면서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腹藏物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장보살 내부에서는 조성 시에 넣은 것으로 보이는 황초복자에 쓴 후령통과 발원문, 경전, 다라니 등이 조사되었다.

1. 목조지장보살좌상

〈木造地藏菩薩坐像〉은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진 一木式 불상으로(도 2), 지장보살은 높이가 46cm, 무릎 너비가 30.5cm로, 높이와 폭이 1:0.6의 신체비례를 가져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기년명 보살상에 비하여 옆으로 퍼진 느낌이 든다.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의 聾聞比丘形으로,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있다(도 3). 엄지와 중지를 맞댄 커다란 손은 佛身과 따로 만들어 끼우는 구조이다. 이러한 手印은 조선후기 제작된 釋迦像을 제외한 여래상과 보살상이 공통으로 취하고 있다.



도 2 초안, 목조지장보살좌상, 1654년, 속초 보광사(금강산 안양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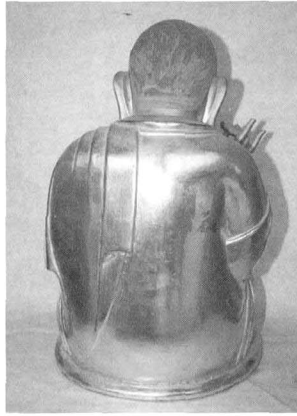


도 3 초안, 목조지장보살좌상 측면, 1654년,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방형의 얼굴에 눈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원통형으로 짧으며, 인중이 다른 불상에 비하여 넓은 편이다(도 4). 몸에 걸친 대의는 變形偏袒右肩으로, 두꺼운 대의 안쪽에 扁衫을 입었다. 오른쪽 어깨에는 한 가닥의 대의자락을 비스듬히 걸치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며, 왼쪽



도 4 초안, 목조지장보살좌상 상반신, 1654년, 속초 보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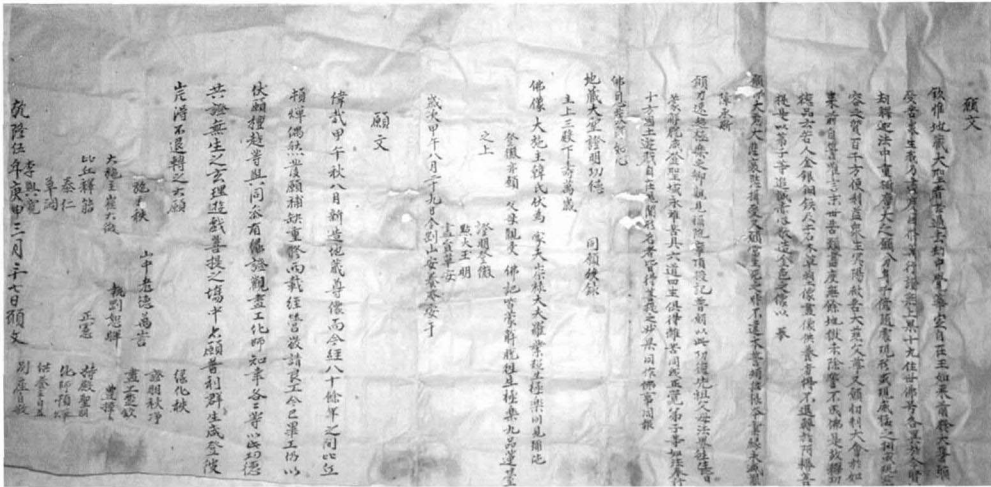
도 5 초안, 목조지장보살좌상 후면, 1654년, 속초 보광사

어깨의 대의자락은 수직으로 내려와 반대쪽 대의자락과 겹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이 완만하게 흘러내린 표현은 17세기 중반부터 나타나는 대의처리이다. 대의 안쪽에 가슴을 가린 僧脚崎는 수평으로 묶어 상단에 연판형의 주름이 접혀있다. 보살상 뒷면에는大衣 자락이 목에 둘러있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도 5).

2. 발원문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은 한 장의 白紙에 조성과 중수·개금에 관련된 내용이 墨書로 쓰여 있다(도 6). 발원문의 釋文과 翻譯文은 다음과 같다.¹⁰



도 6 발원문, 속초 보광사

¹⁰ 조성발원문의 釋文은 필자가, 監修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이, 翻譯은 모악산 대원사 석문 주지님이 하셨습니다.

願文

欽惟地藏大聖者於過去劫中覺華定自在王如來前發大誓願
 受苦衆生我乃盡度因修萬行證無上果十九住世佛號各異於今賢
 劫釋迦法中重樹廣大之願分身千億隨處現形或現威猛之相或觀慈
 容之質百千方便利益衆生冥陽救苦大慈父尊又願忉利大會於如
 來前自誓唯言末世苦類盡度無餘地獄未除誓不成佛是故釋功
 德品云若人金銀銅鐵及土石木草塑像畫像供養者得不退轉於阿耨苦
 提是以弟子等追誠赤心敬造金色之像以奉
 願佛大慈大悲哀愍攝受又願當生死之時不違本誓頓拔根本業緣永滅罪
 障承斯
 願力速超極樂之鄉親見彌陀摩頂授記普願以此功德先祖父母法界往生皆
 蒙解脫咸登聖域永離苦具六道四生俱得離苦同成正覺弟子等如法奉行
 十方國土遊戲自在見聞形名者皆得菩提之妙果同作佛事同報
 佛恩發願如心

地藏大聖證明功德 同願後錄

主上三殿下壽萬歲

佛像大施主韓氏伏爲 家夫崇祿大夫羅業超生極樂同見彌陀

登徽亦願 父母親受 佛記皆蒙解脫往生極樂九品蓮臺

之上 證明 登徽

點火 玉明

畫員 草安

歲次甲午八月二十九日金剛山安養庵安于

願文

偉哉甲午秋八月新造地藏尊像而今經八十餘年之間比丘
 頓輝偶然發願補缺重修兩載經營敬請良工今已畢工仍以
 伏願 檀越等與同參有緣證觀畫工化師知幸各 等以此功德
 共證無生之玄理遊戲菩提之場中亦願普利群生咸登彼
 岸得不退轉之大願

緣化秩

施主秩 山中老德萬崑 證明秋淨

大施主崔大徵 畫工楚欽

比丘釋能 執剛忽暉 豐擇

泰仁 正憲 持殿聖明

草閑 化師頓輝

李與寬 供養主自益

別座自敬

乾隆五年庚申三月二十七日願文

A.

삼가 생각하건대 지장대성자께서 과거의 세월 가운데 각화정자재왕여래 앞에 큰 맹세를 발원하
 시기를 고통 받는 중생을 내가 이에 전부 제도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만행을 닦으시고 더 이상
 위가 없는 성과를 증명하셨습니다. 십구주의 세상에서 부처님의 명칭이 각각 달랐는데, 지금의 현겁

시주질	산중노덕 만은	연화질
대시주 최대징		증명 추정
비구 석능	집강 서휘	화공 초흥
태인	정헌	풍택
초한		지전 성명
이여관		화사 돈천
		공양주 자익
		별좌 자경

건륭5년 경신(1740) 3월 27일 발원의 글을 쓰다.

조성발원문은 크기가 89cm×44cm로, 전반부(A)에 지장보살을 조성한 내용이, 후반부(B)에 지장보살이 조성된 후 80년이 지나 중수한 내용이다.¹¹ 전반부에 지장보살의 조성 시기는 “甲午八月二十九日”로 간지와 일월만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 “甲午年八月新造地藏尊像而今經八十餘年之間”이라는 문구를 통하여 조성된 지 80년이 지난 “乾隆五年庚申”인 1740년에 중수되었다면 역으로 환산하여 조성된 갑오년은 1654년에 해당한다. 이 지장보살이 봉안되었던 강원도 金剛山 安養庵은 「金剛山華嚴寺安養庵重建記」와 「華嚴寺安養庵重修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¹² 안양암은 인조가 즉위한 1623년에 광명당 등 휘가 창건한 후,¹³ 海城厚鼎이 중수하였으며,¹⁴ 1860년(咸豐10, 庚申)에 천재지변으로 파괴된 것을 春潭法咸이 중창하였다.¹⁵

불상 제작을 발원한 한씨는 죽은 남편인 崇祿大夫 羅業의 극락왕생을 축원하였다.¹⁶ 1624년에 예조정랑 申敏一은 환관 宣陵 端午祭에서 불경스런 행동을 한 것을 구실로 환관들의 폐를 상소하였다.¹⁷ 나업은 1638년에 청나라에서 요구한 처녀들을 인솔하

11 발원문은 한 장의 종이에 적혀 있어 중수 때 필서된 것으로 추정된다.

12 「金剛山華嚴寺安養庵重建記」와 「華嚴寺安養庵重修記」(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건봉사본말사적·유점사본말사지』(아세아문화사, 1977), pp. 155-156).

13 述夫在昔 仁祖大王即位之年間 廣明堂 騰輝祖師…(「華嚴寺安養庵重修記」에는 廣明勝輝로 쓰여 있지만, 「金剛山華嚴寺安養庵重建記」과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성발원문에 騰輝로 언급되어 있다).

14 「金剛山華嚴寺安養庵重建記」.

15 「金剛山華嚴寺安養庵重建記」와 「華嚴寺安養庵重修記」.

16 崇祿大夫는 조선 시대 從一品 上 文武官의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17 예조 정랑 申敏一이 상소하여 宦侍의 교만 방자한 폐단을 극언하자, 상이 유사로 하여금 推治하게 하라고 답하였다. 이때 신민일이 宣陵의 端午祭에 典祀官으로 차출되었는데, 출발할 즈음에 환관 羅業이 바로 앞에서 피하지 않았으므로, 민일이 상소하기를 “陵寢의 奠物을 만나면 반드시 공경해야 하므로 대신 이하가 반드시 말을 달려 피해 숨거나 말에서 내려 拱揖하고 서는데, 나업은 태연히 말을 멈추고 끝내 피해 숨지 않았으며 말하는 태도가 매우 도리에 어그러졌습니다. 환시의 교만 방자한 버릇은 조장시킬 수 없으니, 유사를 시켜 그 불경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仁祖實錄』권6, 인조 2년(1624) 5월 6일(己未), <http://sillok.history.go.kr>).

였으며,¹⁸ 1651년에 인평대군이 연경으로 끌려갈 때, 가교를 타고 있어 推考를 당하기도 하였다.¹⁹ 그의 부인이 1654년에 지장보살상 제작을 발원한 것을 보면 나업이 1651년에서 1654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證明으로 참여한 騰輝는 廣明堂으로, 「金剛山華嚴寺安養庵重建記」와 「華嚴寺安養庵重修記」에 화엄사를 창건하였다고 적혀있다.²⁰ 하지만 화엄사 사적에는 廣明勝輝로 나와 있으나, 지장보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하여 등휘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點火로 참여한 玉明은 1665년에 전남 여수 흥국사 범종 명문에 大禪師秩에,²² 1678년에 전남 순천 송광사 사적비 후면에 施主者로 언급되어 있다.²³

이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조각승 草安이 단독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다른 사찰의 명부전 존상이 30여 점에 이르는 것에 비하여 암자에 단독으로 봉안하는 소형보살상이라 단독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은 80년이 지난 1740년에 楚欽과 豐擇이 중수·개금하였다. 수화승으로 참여한 초흙은 1739년에 서울 학림사 괘불도 조성을 주도한 불화승이다.²⁴

3. 복장물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황초복자에 쓴 후령통과 발원문, 경전, 다라니 등이다. 황초복자에 쌓인 후령통은 온전하게 남아있었고, 불교경전은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이하 名稱歌曲)과 『大佛頂首楞嚴經』3권이 조사되었다(도 7).²⁵ 이 가운데 『名稱歌曲』은 조선왕조실록에 14번 언급된 전적으로, 1405-1407년 사이에 영락제가 간행한 불교경전이다.

¹⁸ 시녀를 차출하는 일은 1638년(인조16)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인조는 16~23세의 공노비 중에서 시녀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공노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녀로 선발된 공노비의 부모나 형제 중에서 한 명을 免賤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하였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1638년 7월에 10명의 시녀가 최종 선발되었고, 7월 21일에 환관 羅葉이 이들을 인솔하고 한양을 출발하여 청나라로 떠났다(신명호, 『조선공주실록』(역사의 아침, 2009), p. 201).

¹⁹ 『孝宗實錄』권6, 효종2년(1651) 1월 28일(丙午)와 『承政院日記』 효종2년(1651) 1월 28일(丙午)(<http://sillok.history.go.kr>과 <http://sjw.history.go.kr>) 참조.

²⁰ 「金剛山華嚴寺安養庵重建記」와 「華嚴寺安養庵重修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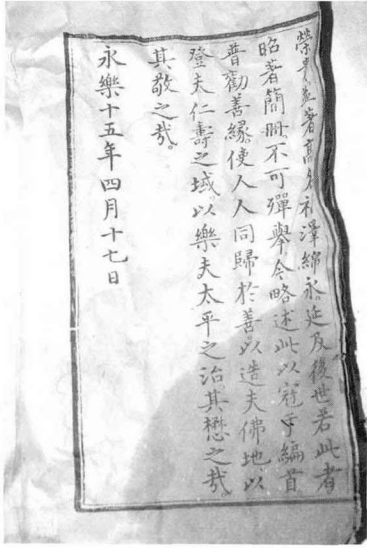
²¹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앞의 책, p. 147.

²² 『한국의 사찰문화재 자료집-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자료집』(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p. 253.

²³ 위의 책, p. 223.

²⁴ 박도화, 「鶴林寺 毘盧遮那三身掛佛畫」, 『聖寶』3(大韓佛敎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2004), pp. 30-39.

²⁵ 鄭亨愚,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의 輸入과 그 普及·誦習問題」, 『동방학지』54-56(1987), pp. 717-734; 임주탁, 「명칭가곡 수흥의 양상과 의미」, 『韓國文學論叢』51(2009.4), pp. 5-50.



도 7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 1417년(명대)



도 8 견직물

속초 보광사에서 발견된 『名稱歌曲』 맨 마지막 장에 “永樂十五年四月十七日”이라는 刊記가 있어 1417년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명나라에서 1417년 12월에 100본이 국내로 유입되었고,²⁶ 1418년 9월에 1,000본을 보내와 선교 양종 사찰에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²⁷ 1419년 12월에 예조에서 반포한 이 경전을 외우게 하고, 승과는 『名稱歌曲』을 외우는 자만 응시하게 하였으며,²⁸ 1434년 5월 25일 황제가 내려 준 『名稱歌曲』 1백 35벌을 禪敎兩宗에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²⁹ 따라서 이 경전은 건봉사나 廣明騰輝가 가지고 있던 경전을 불상 내에 봉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名稱歌曲』이 불상에서 복장물로 발견된 것은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이 처음이다. 같이 발견된 『楞嚴經』은 1547년에 황해도 석두사에서 간행된 것이다. 또한 황초복자에 쌓인 후령통, 金絲로 五足 龍을 짠 비단(도 8), 황색 비단과 자색 비단에 싸인 녹색과 청색 실 등이 발견되었다.

26 『太宗實錄』권34, 태종 17년(1417) 12월 20일(辛丑) “十一月初一日, 帝坐正殿, 賜《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一百本《神僧傳》三百本 冊曆一百本, 臣等欽受, 初二日發行回來”와 “頒《神僧傳》《如來名稱歌曲》于各宗寺社, 徧及各司及諸卿大夫家” 《神僧傳》者, 集自漢以來, 凡怪誕之僧妖言詭行; 《歌曲》者, 集諸佛菩薩之名, 比於音律, 帝使男女日誦, 仍賜諸國”.

27 『世宗實錄』권1, 세종1년(1418) 9월 4일(辛亥).

28 『世宗實錄』권6, 세종1년(1419) 12월 12일(壬午).

29 『世宗實錄』권64, 세종16년(1434) 5월 25일(辛丑).

Ⅲ. 조각승 草安의 활동과 그 系譜 및 佛像 樣式

조각승 초안의 생애와 僧匠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활동한 단편적인 문헌기록을 통하여 활동 시기와 현황에 접근이 가능하다.

1. 조각승 초안의 활동

조선후기 문헌기록 가운데 草安에 관한 내용은 현재까지 네 건이 조사되었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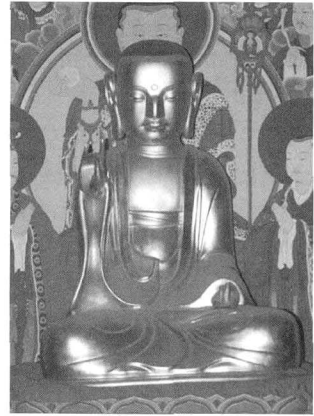
표 1 조선후기 초안스님 관련 문헌기록

연대	지역	봉안사찰	작업 내용	조각승	비고
1654	강원 금강산	화엄사 안양암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草安	造成發願文
1659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	畫工 三忍 妙寬 楚安 何勒 若六 德敏 未讚 道岑 道軒	造成發願文
1706	부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개금	良工 都大片手 比丘 省希 楚眼 釋珪	改金發願文
1707	전남 순천	선암사	중수비 후면 언급	通政大夫 楚安	碑文

(표 1)에서 보듯이 조각승 초안이 태어난 때와 승장이 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초안과 관련된 문헌기록을 통해 활동 시기와 조각승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초안은 앞 장에서 살핀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1654년에 단독으로 조성한 것으로 미루어 이전부터 불상 제작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59년에 제작된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에 참여하였는데, 五道轉輪大王 내부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地藏三尊十王新造成祝願記 順治十六年歲次己亥六月日全南道興陽 縣天燈山金塔寺地藏三尊十王新造 各各施主祝願記… 緣化秩 證明 性一 持殿 益淳 畫工秩 三忍 妙寬 楚安 何勒 若六 德敏 未讚 道岑 道軒 大釘 金仲立 鄭邊龍 別座 靈熙 副別座 禪竺 供養主 敬一 普學 助緣 卓玄 守寶 禪宗判事大功德主 戒巖 禪宗大禪師前 判事助緣大士 戒環 書記 清哲…(필자 진하계)”으로 적혀 있어 수화승 삼인 외 8명의 조각승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도 9).³⁰

³⁰ 이 조성발원문은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이 조사한 내용으로, 필자에게 釋文한 내용을 주셨다.

최근 부산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내에서 조성발원문과 개금발원문이 발견되었다. 보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는 1364년에 청동제 아미타삼존불을 만들었으나 협시보살이 없어져 1502년에 협시보살을 나무로 다시 만들어 삼존불로 봉안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살상은 1706년에 良工都大邊手 省希, 楚眼, 釋珪가 개금하였다.³¹ 수화승 省希와 釋珪는 현재까지 불상 조성이나 개금과 관련된 문헌이 남아있지 않았던 스님들이다.³² 그리고 楚眼은 1706년에 두 번째 언급되어 1650년대 수화승으로 활동한 草安과 활동 시기가 차이가 나서 同名異人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초안은 1707년에 건립된 전남 순천 선암사 중수비 후면에 “通政大夫 楚安”으로 적혀 있다.³³



도9 삼인, 목조지장보살좌상, 1659년, 고흥 금탑사

17세기 중반부터 사찰의 부속 전각이나 암자에 불상이 봉안되면서 불상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불상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의 숫자도 적어지는데,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암자에 봉안한 50cm 정도의 크기로, 목재의 가공, 옷칠, 금을 칠하고 붙이는 전 과정을 초안이 주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제까지 밝혀진 초안의 활동 시기는 1654년부터 1659년까지이다. 초안이 1650년대 수화승으로 활동할 정도라면 1620년대 태어나 1630-40년대 보조화승으로 불상 제작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가 1650년대 강원 고성과 전남 고흥에서 불상 제작에 首畫僧과 次畫僧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이후에 기년명 불상이 조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초안의 조각승 계보

이제까지 초안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하거나 중수·개금한 문헌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활동 시기와 사승 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들과 관련된 기록은 발원문 11개와 사적기 등 3개가 있다(표 2).

³¹ 정은우, 「1502년명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연구」, 『石堂論叢』 48(東亞大學校 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2010), pp. 53-87.

³² 최선일, 앞의 책(2007), p. 180.

³³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앞의 책(2006), p. 192.

표 2 초안과 관련된 조각승 문헌기록

연대	지역	봉안 사찰	작업 내용	조각승	비고
1628	전남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조성	畫員 應圓 高閑 釋湖 法海 戒雄 釋森 懷潤 天翼 □幻 天然 性悅 三忍 信懷 法端	『曹溪山 松廣寺誌』
1651	서울	봉은사 대웅전	협시불좌상 조성	畫員 勝一 離一 衛儀 性照 道岑 雷日 明訥 三應 楚彥 戒哲	이분희, 『奉恩寺 三世佛像의 研究』
1653	전북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조성	畫員 海心 性守 勝秋 敏機 道鈞 妙寬 勝照 勝悅 智文 信日 明照 敬性 一安 處仁 元卞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제주도』
			목조석가삼존불좌상 조성	畫員 海心 性守 勝秋 敏機 道鈞 妙寬 勝照 勝悅 智文 信日 明照 敬性 一安 處仁 元卞	
1654	강원 금강산	화엄사 안양암	목조지장보살좌상 조성	畫員 草安	造成發願文
1654	전남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조성	畫員 秩 養師 無染 兄 正玄 首 海心 智堅 三愚 敏奇 道來 妙寬 一安 信一 勝熙 智文 明照 學梅 處印 英發 壽天	『靈光 母岳山 佛甲寺』
1655	전남 여수	홍국사 응진당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 조성	畫員 印均 三忍 慈敬 海益 清敏 思舜 戒宗 儀坦 若六 鞭後	손영문, 『조각승 인균과 불상조각의 연구』
1655	경북 구미	자운사	석비 건립에 각수로 참여	林儀江 三印	
1657	전북 무주	북고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성	畫員 勝一 處英 道岑	이분희, 『奉恩寺 三世佛像의 研究』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제주도』
1659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조성	畫工 三忍 妙寬 楚安 何勒 若六 德敏 未讚 道岑 道軒	造成發願文
1674	경북 청도	용천사	佛龕 조성	道岑	
1680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 조성	首工 色難 道軒 冲玉 慕賢 惠察 皎一 釋宗 得牛 楚卞 進機 性訓	造成發願文 광주 덕림사 소장
1684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	목조석가불좌상 목조나한상 조성	良工 色難 道軒 行坦 慕賢 楚卞 雄遠 哲玉 道見 文印 (옥련사 - 본존, 정수사 - 나한상)	崔仁善,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1685	전남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십육나한상 조성	金魚 首 色難 道軒 順瓊 幸坦 楚祐 慕善 楚卞 得祐 徹玉 雄遠 文印 載軒	造成發願文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草安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년명 불상은 1659년에 제작된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이다. 이 불상은 畫工 三忍, 妙寬, 楚安, 何勒, 若六, 德敏, 未讚, 道峯, 道軒이 제작하였다. 이 불상들을 수화승으로 제작한 삼인은 1628년에 전남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수화승 應圓과 제작할 때 14명 중에 11번째 언급될 정도로 연륜이나 기능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⁴ 그 후 30여년이 지나 1655년에 전남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을 수화승 印均과 제작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하고,³⁵ 같은 연도에 경북 구미 자운사 석비를 林儀江과 건립하였다.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한 妙寬은 1653년에 전북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을 수화승 海心과 제작할 때 16명 중에 6번째로 언급되고,³⁶ 1654년에 전남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無染, 正玄, 海心과 조성하였다.³⁷ 이들은 17세기 중반에 전국을 무대로 불상을 조성한 대표하는 조각승들로, 대부분 1650-70년대에 불상 제작을 주도한 수화승으로 활동하였다.

금탑사 지장보살좌상 제작에 초안과 같이 참여한 若六은 1655년에 전남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을 제작할 때 10명 가운데 9번째 언급되었다. 조각승 道峯은 1651년에 서울 봉은사 대웅전 <협시불좌상>과 1657년에 전북 무주 북고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수화승 勝一과 조성하고,³⁸ 1674년에 경북 청도 용천사 <佛輦>을 제작하였다.³⁹ 그리고 도헌은 1659년에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제작할 때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었지만, 1680년에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광주 덕림사 봉안), 1684년에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강진 옥련사 본존, 정수사 나한상),⁴⁰ 1685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십육 나한상>을 수화승 색난이 제작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하였다.⁴¹

³⁴ 林錫珍 原著／古鏡 改正編輯, 『曹溪山 大乘禪宗 松廣寺』(松廣寺, 2001).

³⁵ 손영문, 「조각승 인균과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 美術史』 26-1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6), pp. 53-82.

³⁶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 자료집』, 2003, pp. 125-126.

³⁷ 『靈光 母岳山 佛甲寺 地表調査報告書』(동국대학교 박물관·영광군, 2001).

³⁸ 이분희, 「奉恩寺 三世佛像의 研究」, 『한국불교문화학회 하계학술세미나-봉은사의 불교문화』(한국불교문화학회, 2004.7), pp. 13-21.

³⁹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p. 284.

⁴⁰ 崔仁善,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文化史學』 1(한국문화사학회, 1994.6), pp. 129-158.

⁴¹ 최선일, 「彫刻僧 色難의 활동과 佛像樣式」, 『博物館紀要』 23(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pp. 81-110.

3. 17세기 중반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조각승 계보별 불상 양식

조선후기 불교조각 가운데 발원문과 사적기를 통하여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지장보살상은 47점이다(부록 1).⁴²

1) 17세기 중반의 지장보살좌상의 제작 현황

조선후기 제작연대가 밝혀진 지장보살 가운데 가장 빠른 작품은 1605년에 조각승 원오가 전북 완주 위봉사 북암에 봉안한 <四菩薩> 가운데 한 구로, 조선전기에 유행한 보살입상 형태를 따르고 있다.⁴³ 또한 명부전에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으로 봉안된 예는 1610년에 수화승 원오가 제작한 완주 위봉사 작품이 가장 이른 예이다.⁴⁴ 17세기에 제작된 기년명 지장보살상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제작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⁴⁵

(부록 1)에서 알 수 있듯이, 17세기에 제작된 기년명 지장보살은 40점이다. 특히, 1640-80년대 사이에 제작된 지장보살은 35점으로, 조선후기에 기년명 지장보살의 74%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⁴⁶ 이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1630년을 전후해서 명산대찰의 중심 전각이 복원된 후, 1640년대 명산대찰의 부속 전각으로 명부전이 증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660년대를 전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 사찰이 본격적으로 증건되면서 부속 전각으로 명부전이나 지장전이 건립되었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장보살은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였고, 석재는 영남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이 주로 사용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조각승 도우가 1655년에 경북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으로 봉안한 우협시(지장보살)가 가장 빠른 예이다(도 10).⁴⁷

⁴² 최선일, 앞의 논문(2006.6).

⁴³ 최선일, 「17세기 전반 彫刻僧 元悟의 활동과 佛像 研究」, 『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景仁文化社, 2011), pp. 3-28.

⁴⁴ 최근 필자는 1610년에 만들어진 지장보살좌상을 조사하였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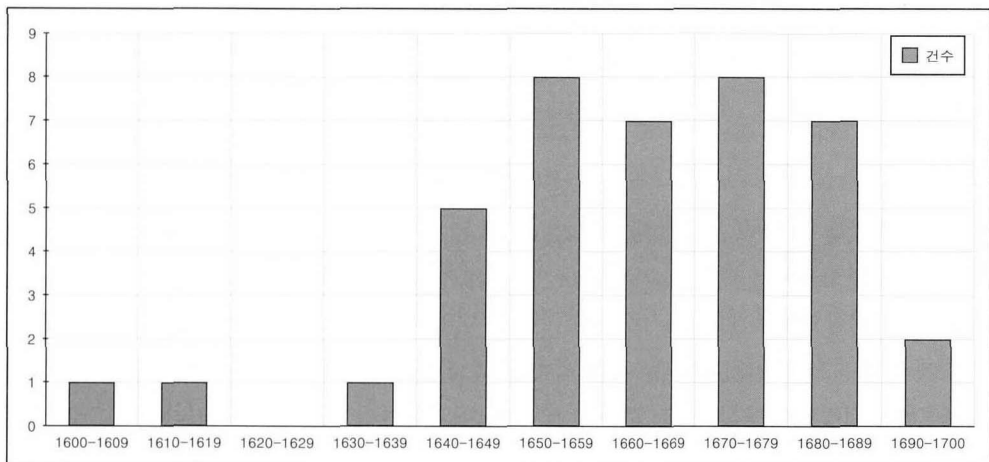
⁴⁵ 논문 뒤에 첨부한 <부록 1>은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도록(『한국의 사찰문화재』)과 필자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지장보살과 같이 만들어진 시왕상에 대한 조성 현황과 개별 조각승의 시왕상의 특징 등은 조태진, 「17世紀後半 명부전의 地藏菩薩像과 十王像 研究: 勝浩, 色難, 端應의 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을 참조할 만하다.

⁴⁶ 본고에서는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목각탱과 불감 내 지장보살은 제외하였다.

⁴⁷ 17세기 후반 석조불상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승호와 그 계보 조각승이 주로 제작하였다(조각승 승호에 관해서는 崔宣一, 「17세기 후반 彫刻僧 勝浩의 활동과 불상연구」, 『禪文化研究』 8(한국선리연구원, 2010), pp. 83-119를 참조할 만하다).

표 3 17세기 지장보살 제작 상황과 조각승

年代	件數	造成 寺刹	首書僧
1600-1609	1	완주 위봉사 북암	元悟
1610-1619	1	완주 위봉사	圓悟
1620-1629			
1630-1639	1	익산 승림사	守衍
1640-1649	5	완주 송광사, 달성 용연사, 순천 선암사, 여수 흥국사, 배천 강서사(서울 화계사 봉안)	印均, 靈哲
1650-1659	8	속초 신흥사, 고창 문수사, 화엄사 안양암, 영광 불갑사, 칠곡 송림사, 진주 청곡사, 고흥 금탑사, 나주 다보사	無染, 海心, 草安, 印迎, 三忍, 智堅
1660-1669	7	대구 용밀사, 강진 무위사, 고흥 능가사, 칠곡 송림사, 진도 쌍계사, 화순 쌍봉사, 청도 용천사	勝一, 懷鑑, 鹿苑, 熙莊, 雲慧
1670-1679	8	고성 옥천사, 웅천 성흥사, 달성 소재사, 고창 선운사, 공주 마곡사, 함천 해인사 희랑대, 청도 덕사, 남해 용문사	敬玉, 自修, 守日, 明俊, 性日, 勝浩, 智玄
1680-1689	7	화순 영봉사, 창원 성주사, 기장 장안사, 예천 용문사, 김해 은하사, 상주 북장사, 완주 대원사	色難, 勝湖, 道軒, 智玄
1690-1700	2	곡성 도림사, 함양 용추사	忠玉(冲玉)
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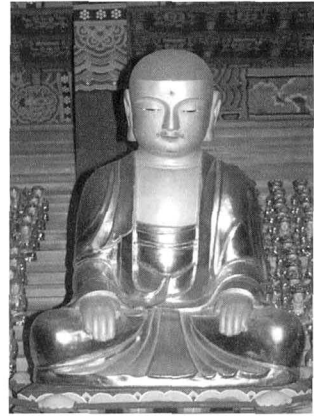


1640-80년대 기년명 지장보살좌상을 만든 조각승을 계보별로 살펴보면, 玄眞 계보(勝一, 應惠, 熙藏, 道岑), 守衍 계보(靈哲, 雲慧), 印均 계보(三忍, 懷鑑, 草安), 無染 계보(海心, 道祐, 性修, 勝浩, 守日), 色難 계보(忠玉, 鹿苑, 印迎, 明俊) 등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지장보살상은 앉아있는 좌상으로, 명산대찰에 봉안된 것은 높이가 120-150cm이고, 중소 사찰에 봉안된 것은 높이가 80-100cm 정도이다. 이 시기 비구형 지장보살은 대부분 머리카락을 녹색으로 칠하였는데, 머리를 삭발하였을 때 푸르스름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작연대가 밝혀진 조선후기 피건형 지장보살은 1790년에 관허설훈이 제작한 경기 가평 현등사 <금동지장보살좌상>뿐이고(도 11), 무기년명 피건형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대구 지장사, 의령 수도사, 청송 대전사, 합천 해인사 궁현당과 길상암, 경주 금정암과 나원사, 부산 범어사와 대원사, 양산 통도사 극락암 등에 봉안되어 있다. 이 피건형 <석조지장보살좌상>은 영남 지방에서 활동한 조각승들이 조선말기와 근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지장보살좌상의 손 위치는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고 있는 유형과 양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17세기에 목조로 만들어진 지장보살이 대부분으로, 양손을 따로 만들어 신체에 끼우는 형식이다. 이와 달리 두 번째 유형으로 가장 빠른 작품은 1643년 대구 달성 용현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이고(도 12), <석조지장보살좌상>으로는 1655년 도우가 만든 칠곡 송림사 <아미타삼존불좌상>의 협시보살이다. 이후 경상도에서 활동한 조각승 승호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유형의 <석조지장보살좌상>만 제작하였다(도 13).

이들 지장보살좌상은 조각승마다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인상이 다르다. 얼굴형은 계란형에서 방형으로 변화되었다. 가장 특이한 얼굴형은 1657년 인영이 제작한 경남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으로 얼굴이 각이 지며 넓적하다(도 14). 이에 비하여 1610년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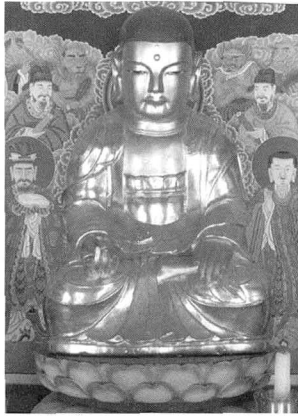
도 10 도우, 석조지장보살좌상, 1655년, 칠곡 송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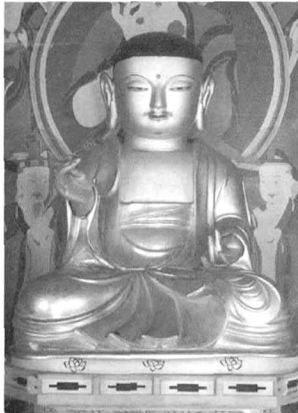
도 11 관허설훈, 금동지장보살좌상, 1790년, 가평 현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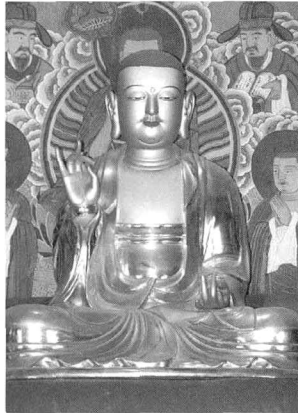
도 12 응혜, 목조지장보살좌상, 1643년, 달성 용연사



도 13 승호, 석조지장보살좌상, 1680년, 청도 덕사



도 14 인영, 목조지장보살좌상, 1657년, 진주 청곡사



도 15 무염, 목조지장보살좌상, 1651년, 속초 신흥사

오가 제작한 완주 위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타원형의 얼굴에 이마와 눈두덩이 넓은 편이다. 무염이 제작한 1651년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인중이 짧고 작은 입에 미소를 머금고, 턱에 한 줄의 음각 선을 두르고 있다(도 15). 이러한 인상은 무염의 계보에 속하는 해심이 1653년에 제작한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도 16).⁴⁸

조선후기 제작된 지장보살상은 모두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친 變形偏袒右肩을 취하고 있다.⁴⁹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자락의 표현이 조각승마다 각각 다르다. 초안이 제작한 1654년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치

켜들어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짧게 늘어진 반면, 1643년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오른쪽 어깨에서 팔뚝까지 완만한 곡선으로 늘어져 있으며, 무염이 1651년에 제작한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가슴까지 길게 늘어진 옷자락이 사선으로 접혀 끝부분이 U자형으로 처리되었다. 이 지장보살들은 하반신에 걸친 대의자락의 처리도

⁴⁸ 무염과 해심의 관계를 필자는 선후배 관계로(최선일, 위의 논문(2006,8), p.76), 송은석은 사제지간(송은석, 「17세기 무염파(無染派)의 조상(造像) 활동」, 『역사학연구』 40(호남사학회, 2010), p. 114)으로 보았다.

⁴⁹ 조선후기 불상의 착의법은 通肩보다 變形偏袒右肩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정은우, 「17세기 조각승 혜희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사회평론, 2006), p. 157).



도 16 해심, 목조지장보살좌상,
1653년, 고창 문수사



도 17 운혜, 목조지장보살좌상,
1667년경, 화순 쌍봉사



도 18 희장, 목조지장보살좌상,
1666년, 진도 쌍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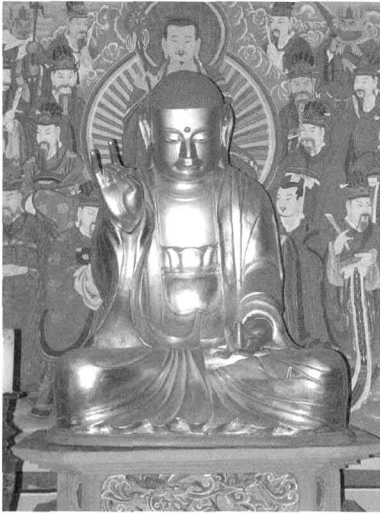


도 19 색난, 목조지장보살좌상,
1680년, 광주 덕림사

각각 다른데, 이러한 특징은 여래와 보살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지장보살상의 결가부좌한 다리 사이에 늘어진 옷자락의 표현을 살펴보면, 1651년에 무염이 제작한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중앙에 늘어진 옷주름이 완만하고 낮게 펼쳐지고 그 뒤로 촘촘한 주름이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은 옷주름 처리는 그의 계보에 속하는 해심이 제작한 1653년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수연의 계보에 속하는 영철이 1649년에 제작한 배천 강서사 〈목조지장보살좌상〉(서울 화계사 봉안)과 운혜가 1667

년 제작한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이 배 부분에서 직선으로 길게 늘어져있다(도 17). 이러한 형태는 1677년 공주 마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 계승되었다. 희장이 1666년 제작한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하반신에 걸친 대의 처리는 1678년에 수화승 지현이 만든 남해 용문사와 1688년에 도잠이 제작한 완주 대원사 지장보살에서 그대로 반영되고(도 18), 작가 미상의 상주 북장사에 봉안된 보살상도 희장이나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색난이 제작한 1680년 광주 덕림사,



도 20 목조지장보살좌상, 17세기 중반, 장성 백양사

1687년 김해 은하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이 결가부좌한 양다리 밑으로 늘어져 완만한 곡선으로 펼쳐지고 그 뒤로 세 가닥의 옷주름이 규칙적으로 늘어져 있다(도 19). 소매자락은 왼쪽 무릎을 완전히 덮어 蓮瓣形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러한 대의처리는 같은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 충옥이 만든 작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조각승 초안이 제작한 지장보살상과 얼굴의 인상과 대의 처리가 동일한 작품은 전남 장성 백양사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으로(도 20), 1650년대 초안이나 그 계보의 조각승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17세기 중반에 조각승 삼인, 묘관과 같이 활동한 초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기록의 한계로 인하여 초안의 생몰연대와 그의 선배로 추정되는 삼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지만, 초안의 계보는 인균(-1615-1655-)→삼인(-1628-1659-)→초안(-1654-1659-)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삼인과 초안의 활동 시기가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선후배 사이가 아닌 師弟之間일 가능성이 있다. 조각승 초안이 불상을 만든 지역은 전남 1곳, 강원 1곳 밖에 없어 거주 지역이나 사찰을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 조각승 초안은 임진왜란 이후에 태어나 1654년 수화승으로 강원 금강산 화엄사 안양암 <목조지장보살좌상>(속초 보광사 봉안)을 단독으로 조성하여 최소한 30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1659년 수화승 삼인과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목조시왕상> 등을 만들 때 9명 가운데 3번째 언급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연배였을 것이다. 이 불사를 진행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한 묘관은 무염, 해심과 공동으로 작업을 한 조각승이지만, 아직까지 수화승으로 제작한 기년명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16세기 말에 일어난 임진왜란 동안 소실된 사찰의 중창과 더불어 17세기 중반에는 지장보살좌상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1630년대 名山大刹의 주요 전각이 복원된 이후 1640년대 부속 전각인 지장전이 건립되면서 지장보살이 제작되었다. 이후 1660년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의 중심 전각이 건립된 후, 1660-80년대 부속전각인 명부전과 지장전이 중건되어 전국에 걸쳐 지장보살좌상이 제작되었다. 이 기간이 지나고 사찰의 중건이 마무리되면서 18세기 이후에 <지장보살좌상>이 거의 조성되지 않는다.

앞으로 전국 사찰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상의 조성발원문이 체계적으로 공개된다면 17세기 중반에 불상을 제작한 삼인, 초안 등의 활동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조각승 초안과 그 계보 승려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나 사찰 등을 밝혀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지역적 특성과 시기적인 양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목조지장보살좌상(Wooden seated Kstigarbha), 彫刻僧(Monk-sculptor), 草安(Choen), 發願文(Dedicative Inscription), 三忍(Samin), 보광사(Bokwangsa Temple)

■ 투고일 2012년 3월 8일 | 심사개시일 2012년 3월 10일 | 심사완료일 2012년 4월 24일 ■

부록 1 조선후기 기년명 지장보살상 제작 현황

연대	지역	봉안처	작업 내용	조 각 승	비고
1605	전북 완주	위봉사	〈목조지장보살입상〉 제작	畫員 元悟 忠信 淸虛 ……	소재 미상
1610	전북 완주	위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圓悟 學文 忠信 ……	
1634	전북 익산	송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守衍 雙輝 靈哲 ……	
1640	전북 완주	송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1643	대구 달성	용연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1644	전남 순천	선암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1648	전남 여수	홍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印均 尙儀 慈敬 ……	
1649	황해 배천	강서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靈哲 印明 尙云 云惠 ……	서울 화계사
1651	강원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造成畫員 無染 道祐 ……	
1653	전북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海心 性守 勝秋 ……	
1654	강원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草安	
1654	전남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養師 無染 兄 正玄 首 海心 智 堅 三愚 ……	
1655	경북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삼존불좌상〉 제작	畫員 道雨 雙照 信岡 ……	
1657	경남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工 印迎 誕華 智邊 ……	
1659	전남 고흥	금담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工 三忍 妙寬 楚安 ……	
1659	전남 나주	다보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智堅 信寬 三愚 ……	
1660	대구	용밀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제작	上畫員 勝一 邊手 勝照 副畫員 明 信 ……	서울 청룡사
1661	전남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首畫員主 懷鑑 道能 賞敏 ……	
1664	전남 고흥	능가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大畫士主 鹿苑 智玄 慧定 ……	서울 지장암
1665	경북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제작	畫圓 勝一 淨倫 智秀 ……	
1666	전남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熙莊 信岡 敬信 ……	
1667 추정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雲慧 印性 道日 ……	
1669	경북 청도	용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淸道郡角 北面湧泉 寺事蹟

연대	지역	봉안처	작업 내용	조각승	비고
1670	경남 고성	옥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首頭 敬玉 釋心 雪明 慧文	
1673	용천	불모산 성흥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良工 自修 鹿苑 宗印 雪坦 ……	합천 해인사
1675	대구 달성	소재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守日 儀唯 道堅 精日 ……	
1676	전북 고창	선운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明俊 敬益 處能 瓊湖 ……	
1677	충남 공주	마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性日 元學 ……	
1677	경남 합천	해인사 희랑대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省□ 淵□	
1678	경북 청도	덕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제작	首畫員 勝湖 畫員 學淨 尙倫 ……	
1678	경남 남해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智玄 宝海 雪坦 ……	
1680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首工 色難 道軒 冲玉 ……	광주 덕림사
1681	경남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勝湖 尙倫 學淨 ……	
1684	부산 기장	장안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제작	良工 勝湖 熙衍 天輝 ……	
1684	경북 예천	용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단응 작 추정
1687	경남 김해	은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工 道軒 首畫員 通政大夫 色難 順瓊 ……	
1688	경북 상주	북장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智玄 性澄 儀英 ……	
1688	전북 완주	대원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1690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忠玉 靈善 楚卞 ……	
1694	경북 함양	용추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工 冲玉 靈善(出) 楚卞 ……	
1703	경북 청송	대전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守衍 崇是	
1706	경기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金文 清允 妙聖 ……	
1714	경북 문경	김룡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1726	강원 삼척	삼화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畫員 麗贊 惠察 道寬 ……	
1790	경기 가평	현등사	〈청동지장보살좌상〉 제작	塑像 寬虛雪訓 龍峯敬還 慧清 ……	
1873	경기 양주	석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제작	漢峰瑠燿 金谷永煥	
1917	울산 울주	시적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제작	玩虎	

참고문헌

1. 단행본

- 權相老, 『韓國寺刹全書(上)』,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金剛山華嚴寺安養庵重建記」와 「華嚴寺安養庵重修記」(『건봉사본말사적·유점사본말사지』수록).
- 『靈光 母岳山 佛甲寺 地表調査報告書』(동국대학교 박물관·영광군, 2001).
- 『承政院日記』.
- 林錫珍 原著／古鏡 改正編輯, 『曹溪山 大乘禪宗 松廣寺』, 松廣寺, 2001.
- 『朝鮮王朝實錄』(『太宗實錄』권1, 권6, 권34, 권64, 『孝宗實錄』권6).
- 崔宣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佛教彫塑』, 養士齋, 2007.
- _____, 『17세기 조각승과 佛像 研究』,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2009.
- _____, 『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景仁文化社, 2011.
- 『한국의 사찰문화재 자료집-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자료집』,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Ⅰ』,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Ⅱ』, 문화재청·재) 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著, 『건봉사본말사적·유점사본말사지』, 亞細亞文化社, 1977.

2. 논문

- 文明大, 「無染派 목불상의 제작과 설악산 新興寺 목아미타삼존불상」, 『고려·조선불교미술사 연구 ; 三昧와 平淡美』, 예경, 2003, pp. 402-416.
- _____,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현진파(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목(木) 비로자나불좌상(毘盧遮那佛坐像)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7, pp. 355-380.
- 박도화, 「鶴林寺 毘盧遮那三身掛佛畫」, 『聖寶』3, 大韓佛敎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2004, pp. 30-39.
- 孫永文, 「조각승 印均派의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 美術史』 26-I, 韓國佛敎美術史學會, 2006, pp. 53-82.
- 宋殷碩, 「17世紀 彫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美術資料』 70·71, 국립중앙박물관, 2004, pp. 69-106.
- _____, 「朝鮮後期 17世紀 彫刻僧 熙藏과 熙藏派의 造像」, 『泰東古典研究』 2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6, pp. 189-229.
- _____, 「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 『미술사학』 2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8, pp. 69-103.
- _____, 「17세기 무염파(無染派)의 조상(造像) 활동」, 『역사학연구』 40, 호남사학회, 2010, pp. 113-147.

- 이분희, 「奉恩寺 三世佛像의 研究」, 『한국불교문화학회 하계학술세미나-봉은사의 불교문화』, 한국불교문화학회, 2004.7, pp. 13-21.
- _____, 「조각승 勝一派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 美術史』 26-I,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6, pp. 83-112.
- 이희정,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 3,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5, pp. 159-184.
- 임주탁, 「명칭가곡 수용의 양상과 의미」, 『韓國文學論叢』 51, 2009.4, pp. 5-50.
- 정은우,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12, pp. 56-64
- _____, 「1502년명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연구」, 『石堂論叢』 48, 東亞大學校 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2010, pp. 53-87.
- 鄭亨愚,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의 輸入과 그 普及·誦習問題」, 『동방학지』 54-56, 1987, pp. 717-734.
- 조태건, 「17世紀後半 명부전의 地藏菩薩像과 十王像 研究 : 勝浩, 色難, 端應의 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1, pp. 171-199.
- 崔宣一, 「全羅南道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雲惠」, 『불교미술사학』 2,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4, pp. 199-219.
- _____, 「조선후기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8.
- _____, 「17세기 전반 彫刻僧 守衍의 활동과 佛像 研究」, 『東岳學術史學』 8, 동악미술사학회, 2007, pp. 149-171.
- _____, 「彫刻僧 色難의 활동과 佛像樣式」, 『博物館紀要』 2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pp. 81-110.
- _____, 「17세기 전반 彫刻僧 元悟의 활동과 佛像 研究」, 『17세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재) 한국연구원, 2009, pp. 1-26(『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景仁文化社, 2011, pp. 3-28 재수록).
- _____, 「朝鮮 後期 彫刻僧과 佛像樣式의 변천」, 『美術史學研究』 261, 韓國美術史學會, 2009.3, pp. 41-75.
- _____, 「17세기 후반 彫刻僧 勝浩의 활동과 불상연구」, 『禪文化研究』 8, 한국선리연구원, 2010, pp. 83-119.
- 崔仁善,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文化史學』 1, 한국문화사학회, 1994.6, pp. 129-158.

3. 사이트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강원도 속초시 보광사 대방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제작한 초안비구에 관한 연구이다. 이 보살상은 2010년 9월에 사찰의 의뢰를 받아 樹種과 年輪年代 등을 조사하던 중에 복장물을 비롯하여 발원문이 조사되어 조선후기 보살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발원문에 의하면 〈목조지장보살좌상〉은 1654년 금강사 안양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登徼가 證明을 맡고, 초안이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 불상의 대시주로 나오는 한씨는 남편인 승록대부 나업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에 시주를 하는데, 증명으로 참여한 등휘도 부모께서 모두 해탈을 하여 극락구품 연화대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보아 불상의 조성에 시주자로 참여한 후원자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제작한 초안은 기존에 1659년 수화승 三忍과 전남 고흥 금탑사 〈지장보살〉과 〈시왕상〉을 제작한 조각승이다. 따라서 초안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불상이 이번엔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1740년에 초흙과 풍택이 지장보살좌상을 중수하는데, 초흙은 1739년 서울 학도암 괘불도를 조성한 불화승으로 18세기 불상의 중수와 개금을 불화승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높이 46cm의 중소형 불상으로, 민머리의 聲聞比丘形이다. 지장보살은 상체를 앞으로 약간 내밀고, 佛身과 따로 제작된 양 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손의 형태는 조선후기 제작된 釋迦佛을 제외한 대부분의 존상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手印이다.

보살은 각이 진 얼굴에 가늘게 뜬 눈, 원통형의 코,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다. 착의법은 두꺼운 대의 안쪽에 扁衫을 입고, 대의자락의 한 가닥을 들어 올린 손목 뒤에 비스듬히 걸치고,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왼쪽 어깨의 대의자락은 수직으로 내려와 반대쪽 대의자락과 겹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이 완만하게 흘러 내려 표현된 것은 17세기 중반부터 나타나는 대의치리이다. 대의 안쪽에 가슴을 가린 僧脚崎는 수평으로 묶어 상단에 연판형의 주름이 접혀있다. 불상의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를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얼굴의 인상과 착의법을 한 조선후기 불상으로는 전남 장성 백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으로, 1640-50년 사이에 초안이나 그 계보 조각승에 의하여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인균(-1615-1655-)→삼인(-1628-1659-)→초안(-1654-1659-)으로 이어지는 조각승 계보는 17세기 중반의 불교조각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찰의 중창과 중건이 진행되면서 지장전의 건립과 비례하여 지장보살이 제작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여러 조각승들이 만든 지장보살의 양식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보았다.

Abstract

Seated Wooden Bodhisattva of Bogwangsa Temple
and Monk-sculptor Choan

Choi sun il *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wooden sculpture of seated Ksitigarbha located in the Daebang Hall of Bogwangsa, Sokcho, Gangwon-do, and the monk-sculptor Choan who created it. According to the votive inscription found inside the statue, with a text describing the circumstances and purpose of its creation, the seated Ksitigarbha was made in 1654 by Choan to house it in Anyangam Hermitage of Geumgangsa Temple.

In 1659, Choan rendered another statue of Ksitigarbha and that of Ten Kings of Hell for Geumtapsa Temple in Goheung, Jeonnam, together with the head monk-sculptor Samin. The seated Ksitigarbha of Bogwangsa was repaired, nearly a century later, in 1740, by Choheum and Pungtaek. Choheum was a monk-painter who painted the Gwaebuldo (outdoor banner painting) of Hakdoam Hermitage in Seoul (1739).

The wooden statue 46cm in height, and represents bareheaded Ksitigarbha, so-called as seongmunbigu. The upper body is slightly projected forward, and the two hands, separately created and added to the body, are gathered in a mudra, with the thumb of one touching the tall finger of the other. The face has sharp angles, and the eyes are represented by two thin slits with a cylindrical nose and a mouth lit by a small smile. Ksitigarbha dons two layers robes, the inner robe and the outer robe. The inner robe, visible behind one hand of Ksitigarbha, grabbing and holding up the outer robe, hangs obliquely and covers the elbows and abdomen, then stretches to the left shoulder. One end of the outer robe hangs from the left shoulder falls vertically and overlaps with the other end from the right side over the lap.

* Cultural Connoisseu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skirt covering the lower half of the body is shown flowing loosely, following the drapery style popular since the mid-17th century. The upper inner robe is bundled horizontally and has lotus petal-shaped folds along the top edge. The backside of the statue has details such as an end of the outer robe continuing around the nape, and another end of it descending from the left shoulder down the back torso.

Similar wooden seated Ksitigarbha, having similar facial traits and garment details, housed in Baegyangsa Temple in Jangseong, Jeonnam. Based on stylistic similarities, Baegyangsa wooden seated Ksitigarbha appears to have been rendered around 1640 and 1650, by Choan or another monk-sculptor sharing the latter's lineage.